

발명계의 호화제

살아있는 생선보관법

생선은 하루만 지나도 상해서 먹을 수 없는 식품인데 며칠이 지나도 살아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는 보관법이 개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의 발명가 나가우라와 규슈대학 농학부의 다케다 교수팀에 의해 개발된 이 보관법은 살아있는 생선에 5천볼트의 전기를 30초간 가한후 5분동안 산소를 호흡시키면 1~4주간 보관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생선이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호흡만을 하고 죽지도 살지도 않은 가사상태에 들어간다고 한다.

원래 이 보관법은 바다에서 먼곳에 떨어진 소비자에게 싱싱한 생선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가사상태의 이 생선은 산소소비량이 거의 없어 물통에 반이상 고기를 채워도 보관과 수송이 가능하여 유통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오징어에 전기충격을 주면 먹물을 다 토해낸후 가사상태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밝혀져서 획기적인 보관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시장에 가서 잠자는 물고기를 사다가 잠을 깨워 바다에서 금방 잡은 것같이 펄떡펄떡 뛰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파란장미

장미꽃의 색깔은 빨강색, 흰색, 검정색 등 거의 모든 색깔이 나와 있다.

그러나 유독 파란색의 장미만은 여태까지 나

온적도 없고 개발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만약 파란색의 장미가 나온다면 가장 인기있는 꽃중의 하나가 될 것이고 이 파란장미를 개발한 사람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된다.

이런 푸른 장미의 꿈이 이제 현실로 나타날 때가 되었다.

호주와 일본의 합작회사인 인터내셔널 플라워 디벨로프먼트사는 지난 5년간 7백50만달러의 연구비를 들여 푸른 장미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1993년말까지 이 푸른 장미를 세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 회사는 또 꽃병에 있는 꽃의 수명을 두배로 연장하는 연구도 하고 있는데 현재의 5~6일에서 최소한 10일 이상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파란 색깔의 쉽사리 시들지 않는 장미가 나온다면 꽃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되고 이 연구를 진행시킨 회사는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는데 벌써부터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신선한 공기를 판다

매연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깊은 산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하는데 그 꿈이 지금 일본에서 현실화되었다.

더럽혀진 공기 대신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강통에 넣어 파는 새로운 사업이 그것인데 그동안 공기청정기에 의해 이루어졌던 공기산업에 커다란 바람이 불고 있다.

산소를 파는 사업은 70년대 전반 등산용으로

시작된 것이 최초이지만 지금은 등산, 테니스 등 운동후의 산소보충과 학생들의 공부, 회사원들의 회의 등 기분전환을 위한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도 지난 88년 서울올림픽때 수입되어 부분적으로 공급되었는데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판매량도 크게 늘고 있다.

약국이나 슈퍼에서 개당 5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이 산소발생기는 1회에 2초씩 사용하면 50~60회정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도 간단해서 캡 뚜껑을 벗기고 노즐을 꽂으면 되고 산소마스크를 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마스크를 입에 대고 손으로 강통의 윗부분을 누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다.

갈증이 나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이 산소발생기는 이제 머지않아 매연과 담배연기에 찌든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휴대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 흘리지 않는 수술

대수술을 받을때 다른 사람의 피를 공급하지 않아도 될만큼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약품이 개발되었다.

런던의 한 병원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 약품은 심장절개수술이나 심장·폐이식수술을 받

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뇌수술, 간 이식, 위와 정형수술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의 수도 런던에 있는 해머스미스병원의 심장외과 의사들은 바이에르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트라실론」을 사용한 결과 수술하는 동안에 상당한 양의 혈액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약이 수술에 광범위하게 쓰이면 수혈을 통해 전염되는 각종 질병, 특히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전염경로를 차단할 수 있어서 신의 선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수혈을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대단히 환영을 받는 약품이 될 수 밖에 없다.

헤어필드병원의 심장·폐이식센터의 자문 마취의사인 데이비드 로이스튼 박사는 “환자가 얻는 이득은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이 실제로 증명되고 있는데 전에는 심장, 폐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 6명중 1명정도가 수술후 몇달안에 출혈로 사망했는데 헤어필드병원에서 이 약을 투입한 후 수술을 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중 사망한 사람은 지금까지 2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신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 (柳泰洙 記)

개업안내

金永吉·任昌顯·元惠中·金明燮·金吉燦 合同-際特許法律事務所

서울特別市 江南區 驛三洞 648-23 大興빌딩 402號

TEL : (02) 553-1986 / 7, 555-0491

538-5700 538-5701

FAX : (02) 555-0492, 556-2620